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태국, CPTPP 관심 높지만, 참가 결정 지체



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태국 상무부는 현 정부 하에서 CPTPP 참여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지만, 참여 관심은 꾸준히 높은 상황이다. CPTPP 위원회는 태국이 해당 협정에 참가할 경우, 태국 현지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식품, 신발, 봉제업계 무역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CPTPP 참여에 높은 관심 보여...

지난 해 3월 쏜킷 자투스피탁(Somkid Jatusripitak) 태국 경제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태국은 계속해서 CPTPP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30개의 관계 부처 및 단체로 구성된 CPTPP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CPTPP 참여 영향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당 협정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태국이 CPTPP에 참가할 경우, 가죽 제품, 신발류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무역 기회 증대를 위해 시장 접근 개선 및 수출품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PTPP 가입에 따른 무역 증가 5개 품목〉

순위	수출	수입
1	가죽 제품 / 신발	쌀
2	해산물	해산물
3	동물성 제품	우유
4	쌀	과일 및 채소류
5	과일 및 채소류	커피·차

(출처: JETRO, 2019)

CPTPP 참여 지체, 시간 다소 걸릴 듯

태국이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내 수출 순위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다른 경쟁 국가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의 높은 참여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가 결정 및 협상을 진행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무부 장관은 현 정부 하에서는 CPTPP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회원국들의 협상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내각 협의가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총선과 내각 구성이 각각 2월과 5월로 예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태국 정부가 CPTPP 참가 결정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협정에 대한 참가 결정, 협상 및 시기 등이 지체되고 있으나, CPTPP 참여에 대한 태국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연내에 가입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정리 : EMERiCs, 자료감수: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 JETRO, 태국, 태국, CPTPP 관심 높지만, 참가 결정 지체, 2019.01.07
-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19/5d2f4a37882c0069.html>